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

2015년 0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고 은 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Joan P. Yoo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0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고 은 혜

고은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07월

위원장 강 상 경 

부위원장 하정화 

위원 유 조 안 

국문초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고 은 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기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래 친구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삶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병리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완충모델을 근거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청소년 간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스트레스 경험으로써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으로써 삶의 만족도,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3차년도(2012년) 조사대상자 중 부모와 아동이 설문에 모두 응답한 2,198명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가설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셋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완충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지만,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영향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으므로,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 것은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개입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완충모델에 근거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전국 대표성을 갖는 자료를 활용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중학교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 빈도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다양한 개인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완충효과

학 번 : 2012-20121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스트레스 완충모델	5
제2절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이해	8
제3절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삶의 만족도	11
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11
2.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3
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변인	16
제4절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18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1
제1절 연구모형	21
제2절 연구가설	22
제4장 연구방법	23
제1절 연구자료	23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24
제3절 연구모형의 분석방법	27
제5장 연구결과	29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제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32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2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34

제3절 가설 검증	36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7
2.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0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42
제6장 결론	46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46
제2절 논의	49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와 삶의 만족도	49
2.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50
3.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52
제3절 연구의 함의	54
1. 이론적 함의	54
2. 실천 및 정책적 함의	56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59
 참고문헌	62
부록(설문지)	73
Abstract	77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피해여부에 따른 차이	32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35
[표 4]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8
[표 5]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1
[표 6]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43

그 립 목 차

[그림 1] Wheaton(1985)이 제시한 자원의 상호작용효과 모델	7
[그림 2] 연구모형	21
[그림 3]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4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러 연구들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다른 나라 아동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2014)의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아동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회원국 중에서 최저 수준임이 드러났다. 또한 네팔, 에티오피아 등이 포함된 12개국과의 비교연구와(이봉주 외, 2015)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비교한 연구에서도(임희진 외, 2012) 국내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은 꼴지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아동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처럼 심각하게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이유는 가족의 보호·지지기능의 약화,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롯되었다(임희진 외, 2012; 장근영 외, 2013; 보건사회연구원, 2014). 그 여러 기인들 중에서 본 연구는 부정적인 또래 관계, 즉 또래 괴롭힘을 청소년기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발달 단계 상, 청소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집단과 함께 보내며 친구들과 사이에서의 인정과 수용 및 평가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정옥분, 2004).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또래집단 내에서의 지위 박탈시킬 뿐 아니라, 이로인한 자기 존재 및 정체감의 손상 등을 발생시키므로 이들의 행복감을 낮추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Konu, Lintonen & Rimpleä, 2002; Goswami, 201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과(Rigby & Slee, 1999; 김재엽, 이근영, 2010; 최수미 외 2012) 비행 및 일탈 등의 청소년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rseneault, Bowes & Shakoor, 2010; Sullivan, Farrell & Kliewer, 2006). 이와 더불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및 자기정체성, 사회적 기술 등의 긍정적인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

에(장안식, 2012; 서운, 2014),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도 주목되어 왔다(Goswami, 2012; Tiliouine, 2014; 장안식, 2012; 노성호, 2013; 서운, 2014; 김정미, 염유식, 박연민, 2014). 즉, 선행연구들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이들의 삶의 질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임을 밝혀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¹⁾이 병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장준오 외, 2012). 실제로 최근 3년간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응답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²⁾(관계부처 합동, 2014), 피해경험 이후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응답비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청소년 폭력예방재단, 2014).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노력들이 또래 괴롭힘의 양적인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는 있지만,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왔다는 점에 주목하게 만든다. 특히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을 위한 개입은 또래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개입 역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김광수, 2012; 홍나미, 박재연, 2014). 이러한 발견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에 막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부족했다는 점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 1항에 의거하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부처 합동(2014)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012년 12년도 2차(8.5%), 13년도 1차(2.2%), 13년도 2차(1.9%), 14년도 1차(3.4%), 14년도 2차(1.2%)로 학교폭력 피해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이후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다', '매우 고통스러웠다'에 응답한 비율은 2011년 33.5%, 2012년 49.3%, 2013년 56.1%로 점차 증가하였다.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 및 행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비교적 최근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탐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완충시킬 수 있는 개입의 지점을 밝혀온 국내 연구는 드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 및 경험적 근거도 부족해 온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완충모델(stress-buffering model)을 적용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Wheaton(1985)의 상호작용 모델(interactive-effect buffering model)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가 완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은 많은 연구를 통해 역경(adversity) 및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완충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 확인되어왔다(최미래, 이인혜, 2003; 박현선, 이상균, 2008).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를 완충시킬 수 있는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또래 괴롭힘 관련 연구들이 학교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등학생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또래 괴롭힘의 질적인 심각성은 중학교시기에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Eslea & Rees, 2001). 예컨대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중 3,867명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중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응답하였고(연합뉴스, 2013.6.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 증가율은 중학교시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관계부처 합동, 2012). 즉, 중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문제는 그 발생 건수에서 뿐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에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시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기이다. Fortin 외(2015) 연구에 의하면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는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전체 평균의 10% 이상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학교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며(경기도교육청, 2012), 15개국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비해 행복감이 하락하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유조안,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질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삶의 만족도가 지나치게 낮게 보고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전국 규모로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관계를 완충시킬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발견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적 개입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buffering model)

스트레스(stress)와 자원(resources), 그리고 삶의 질(well-being)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중반 예방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행복 및 건강행동 등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개인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사회 환경적 의미와 자극에 대한 개인적 의미 및 해석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Pearlin, 1989). 스트레스 요인(stressors)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혼, 갑작스러운 질병 등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개인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chronic events) 뿐 아니라, 가족 간의 다툼, 성적 저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생활사건(life events)도 포함된다(Lazarus & Folkman, 1984). 즉, 스트레스 요인(stressors)은 개인과 환경의 역동(person-environment transactions)을 통해 발생되고, 이러한 역동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적응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Lazarus & Cohen, 1977). 이러한 관점에서 Lazarus와 Folkman(1984)은 심리적 스트레스(psychological stress)에 대해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여 개인의 삶의 질(well-being)을 위협한다고 인지된 평가’라 정의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과 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대처모델(Stress-Coping Model)을 통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 그리고 대처전략 등을 강조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은 스트레스 요인 혹은 위협적인 사건에 대해 스트레스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1차적 평가(primary appraisal)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노력(coping efforts)을 결정짓는 2차적 평가(secondary appraisal)를 진행한다. 즉, 어떠한 상황이

1차적 평가를 통해 스트레스로 지각되어 개인적 자원에 부담이 될 때, 개인은 실제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2차적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2차적 평가는 주로 개인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다룰 수 있는지, 대처자원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등으로 이루어진다(Glanz & Schwartz,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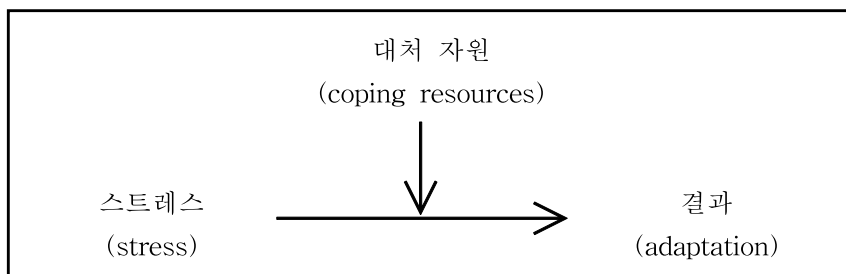
이처럼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의 관계는 대처(coping) 및 자원(resource)의 영향을 받게 된다. 대처 및 자원은 스트레스적인 문제 혹은 상황을 수정할 수 있고, 스트레스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적인 특징을 갖는다(Pearlin & Schooler, 1978).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coping)는 자원(resource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Lazarus & Folkman, 1984; Wheaton, 1985; Cohen & Edwards, 1989; Callan & Schweitzer, 1994). 이러한 대처 자원에는 건강 및 에너지, 긍정적인 신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등과 같은 개인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포함되며(Lazarus & Folkman, 1984; Cohen & Edwards, 198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원의 적절한 배치는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며, 성공적인 적응을 이끌 수 있다.

Wheaton(1985)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의 완충효과로써 부가효과(additive buffering effect)와 상호작용효과(interactive buffering effect)를 제시하였다. 그 중 대처자원의 부가효과(additive buffering effect)란, 스트레스로 인해 대처자원의 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완충효과를 뜻한다. 즉,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자원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대처자원의 양도 증가한다는 부가적 효과의 전제가 충족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대처자원의 상호작용효과에 집중하였다(Cohen & Will, 1985; Pearlin, 1999; Glanz & Schwartz, 2008; Thoits, 2013).

스트레스와 결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대처자원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ve buffering effect)를 통해,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사

람들일지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대처자원의 유동적인 특성만을 주목했던 것에서 확장하여 스트레스 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대처자원 수준에 따라 건강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Cohen & Will, 1985; Wheaton, 1985; Callan & Schweitzer, 1994; Pearlin, 1999; Glanz & Schwartz, 2008; Thoits, 2013).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매개효과 분석은 일반적으로 어떤 효과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조절효과 분석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적응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효과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목적에 적합하다(Baron & Kenny, 1986).

Wheaton(1985)은 대처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stress)가 심리적 고통(distress)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이들 관계를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Wheaton(1985)의 상호작용모델을 적용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Wheaton(1985)이 제시한 자원의 상호작용효과 모델

4) 본 연구에서는 Wheaton(1985)의 상호작용적 완충효과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가 예시 이전에 사용했던 용어인 “스트레스(stress)-대처자원(coping resources)-결과(adaptation)”로 제시하였다.

제2절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이해

또래 괴롭힘(bullying)은 일반적으로 “한 명 또는 다수의 학생들이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부정적 행동(Olweus, 1984)” 또는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힘의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적인 행동(Farrington, 1993)” 등이라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또래 괴롭힘의 특성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에 따라 먼저 살펴 볼 특성은 또래 괴롭힘이 집합적 성격(collective)을 지닌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집단과정(group process)이라는 사실이다(Björkqvist, Ekman, & Lagerspetz, 1982;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에서 재인용). Salmivalli 외(1996) 연구자들은 또래 괴롭힘을 집단적 맥락으로 이해했으며, 또래 집단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참여하는 6가지 역할유형(participant role)에 대해 설명하였다. Salmivalli 외(1996) 연구에 따르면 또래집단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가해자(ringleader bullying), 가해행동을 따르지만 주도하지는 않는 조력자(assistant of the bully), 가해 행동을 부추기는 강화자(reinforcer of the bully), 이러한 가해행동을 당하는 피해자(victim),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가해행동을 막으려고 애쓰는 방어자(defender of the victim), 또래 괴롭힘을 보고도 묵인하는 방관자(outsider)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주변 또래들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또래 괴롭힘에 종종 합류되어 가해자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돕거나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를 묵인하는 방관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주변 또래들은 방어자 유형과 같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거나, 가해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비난 혹은 철회하도록 유도하여 또래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가능성 또한 있다. 즉, 또래 괴롭힘의 발생은 단순히 괴롭힘을 행하는 가해자와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로 양분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이외 또래집단을 구

성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의 환경적인 영향도 받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괴롭힘이라 간주되는 부정적인 행동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다. 교사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은 청소년기의 언어 및 관계적 괴롭힘 등은 정상적(normal)이고 해롭지 않은(harmless) 사소한 문제(tactics)라 간주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은 피해경험에서 제외하였으며 오직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만을 괴롭힘 피해경험이라 보는 경우도 있었다(Hazler, 1992; Bauman & Del, 200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해 폭넓은 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행동에는 때리기,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손상시키기 등의 신체적 괴롭힘(physical bullying), 욕설 및 심한 놀림을 포함하는 언어적 괴롭힘(verbal bullying), 집단 또는 행사에서의 제외 또는 고립시키는 관계적 괴롭힘(relational or indirect bullying), 전자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당한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학생이라 분류하고 있다(Olweus, 1993; Dupper, 2013). 즉, 또래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동은 주체에 따라서 가벼운 장난이나 놀이로 여겨질 수 있지만 피해자 관점에서는 ‘자신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자체가 청소년기의 강력한 스트레스 경험인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경험에 대해 폭행, 협박, 강탈, 성폭행 및 성희롱, 심한 놀림 및 욕설, 집단 따돌림 등 신체 및 언어, 관계적 괴롭힘을 포괄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피해경험을 경험했고, 이를 피해경험으로 인식했을 때, 이를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또래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과 관련한 것으로 이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괴롭힘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그 중 Olweus(1993)는 또래 괴롭힘의 주요 특성으로 반복 및 지속성을 지목하였으며, 괴롭힘 피해 횟수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지속될 경우에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일 연구에서 Olweus(1993)는 지속성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라 부언하면서 피해자 중심적인 관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회적인 괴롭힘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강력한 충격 및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할 수 있다.

이처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 집단 내 불균형적인 세력들에 의해 신체 및 언어, 관계적인 괴롭힘을 반복적으로(repetition) 당하거나, 불연속적인 공격(unprovoked attack)을 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신체 및 심리적인 손상 뿐 아니라 삶의 균형 및 항상성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긴장 및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Olweus, Limber & Mahalic, 1999; Pellegrini & Long, 2002).

제3절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삶의 만족도

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관련한 연구들은 점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장되어졌다. 어린 시절의 행복감은 성인기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행복감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Diener, 1994), 청소년기의 주요한 적응 및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그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Park, 2004). 청소년기의 경우 특별한 병리적인 증상을 보고하지 않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부적응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자기인식 등으로 낮은 상태의 심리적 삶의 질(psychological well-being)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Park, 2004). 즉, 개인이 질병 또는 심리적 고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삶(good life) 혹은 건강한 상태(health)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Diener, 1994)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은 주로 3가지 구성요소로 설명되는데, 높은 수준의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 및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negative affect),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뜻하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이다. 이들은 서로 상호연관성을 갖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Diener, Oishi & Lucas, 2009), 그 중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의 경우는 자신에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로 순간적인 감정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들(emotional responses)에 비해 좀 더 안정성(stable)을 갖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변화를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선호되어왔다(Pavot & Diener, 1993; Cowen, 1994; Park, 2004).

특히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동시에 이들 부정적인 발달(negative youth development)에 대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써

의 역할을 수행한다. 선행연구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희망, 자기 통제력 및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등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높게 나타내며(Huebner, 1991; Greenspoon & Saklofske, 2001; Gilman, 2001; Bradley & Corwyn, 2004),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 등과 같은 건강행동(healthy behaviors)도 활발하다는 특성을 보여준다.(Zullig, Valois, Huebner, Oeltmann & Drane, 2001). 반면,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우울, 신경증, 외로움 등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psychological disorders)을 자주 호소하며(Gilman & Huebner, 2006), 약물사용이나 흡연, 음주 등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행동을 비교적 높게 보인다(Frisch, 2000; Zullig et al., 2001;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또한 Suldo 와 Huebner(2004)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적인 사건은 청소년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긍정적인 감정(positive emotion)을 높이는데,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돕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컨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발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높은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발달에 대항하는(against) 보호하는 요인이자, 성인기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할 수 있다(Diener,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겪은 경험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부정적인 발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위한 개입의 지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2.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삶의 질에 핵심요인으로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왔다(Diener & Seligman, 2002). 대인관계와 소속감의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를 실현해갈 때,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들을 둘러싼 가족, 친구, 교사,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이로써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이 이루어진다(Konu et al., 2002).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은 여러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또래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장근영 외, 2013). 반면, 또래친구로부터의 괴롭힘은 상당한 충격 혹은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며,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또래 집단 전체에 불안과 불신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낮추는 핵심이라 볼 수 있다(Olweus, 1993; Rigby, 2000; Flouri & Buchanan, 2003; Michalos & Zumbo, 2000; Goswami, 2012; 노성호, 2013; Tiliouine, 2014).

Tiliouine(2014)은 알제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을 능동적인 괴롭힘(being hit by other children in school)과 수동적인 괴롭힘(being left out by classmates)을 구분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따돌림이나 소외 등과 같은 수동적인 괴롭힘을 많이 당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탈리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Gini(2008)는 또래 괴롭힘 유형 중에서도 특히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relationship victimization)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또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차단하고, 또래 수용성(group acceptance)을 방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적 괴롭힘이 이들의 친구관계 만족도(satisfaction with friends)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들 연구는 신체 및 물리적으로 드러난 폭력보다도 또래 집단 내에서 겪는 따돌림, 소외 등이 청소년기의 주관적 삶의 질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정미 외(2014) 연구자들이 또래 괴롭힘 경험이 청소년의 긍정 및 부정적인 안녕감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형, 가해형 및 피·가해를 모두 경험한 양자형 집단은 괴롭힘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적 행복감은 피해형 및 양자형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즉,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해 및 무경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행복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성호(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정폭력과 그 밖의 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예방과 피해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성호(2013)의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문항이 금품갈취, 폭행, 위협이나 협박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한 놀림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등의 간접적인 피해경험을 포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영향은 중단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집단일수록 무경험 집단에 비해 우울, 사회적 위축, 분노, 공격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반면, 자아신뢰감이나 삶의 만족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발달은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장안식, 2012; 서윤, 2014). 이들 연구들은 또래인정(peer approval)과 소속집단(group membership)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 강조되는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소외, 폭행, 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괴롭힘 피해경험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Parkhurst & Asher, 1992; Gini, 2008에서 재인용).

Olweus와 Breivik(2014)는 또래 괴롭힘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의 목적은 개인의 고통(personal suffering)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삶의 질(well-being)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 및 또래들로 구성된 모든 집단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주관적 삶의 질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고(Bacete, Perrin, Schneider & Blanchard, 2014; Tiliouine, 2014), 괴롭힘 피해경험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buffering model)에 근거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개입의 지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변인

또래 괴롭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들을 비롯하여 학업성취,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변인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함에 있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성별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지만(김정연, 정현주, 2008; 이주리, 2009; 고혜영, 2012),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0). 또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성별에 따라 발생빈도 및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Rigby, 2000; Wang, Iannotti & Luk, 2010)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성별을 통제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구조, 가족관계 등에 따라 삶의 만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학력수준은 대표적인 인적 자본으로써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김정연, 박현주, 2008),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높은 삶의 만족도가 높게 예측 된다고 밝혀왔다(Brown, 2004; 김정연, 정현주, 2008; 이현주 외, 2008).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에 따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였다(조명호, 김정오, 권석만, 1994). 또한 가족 구조의 불안정함은 청소년의 삶에 대한 감독이나 조언을 소홀하게 하며, 불안정한 양육태도 및 애착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협으로 이끌 수 있다(Brown, 2004).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 가족의 기능적인 부분이 긍정적일 경우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질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Young, Miller, Norton & Hill, 1995; Zullig et al., 2001; Suldo & Huebner, 2004;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0). 게다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아동 학대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발생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Turner, Finkelhor & Ormrod,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부의 학력, 가구 소득, 가족 구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통제변수로 처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 등이 삶의 주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지영, 2007; 신성자, 2014). 성적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들의 성취동기를 증진시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으며(Huebner, Funk & Gilman, 2000; 임미향, 박영신, 2006; 이주리, 2009),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감은 종단적으로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최희철, 황매향, 2011)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전반적인 학업 만족도를 통제하고자 한다.

제4절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기에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트라우마적인 사건(traumatic events) 혹은 축적된 스트레스 경험(cumulative stress experiences)으로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buffering)을 적용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을지라도 각 개인이 소유한 대처자원(coping resources)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발견하고자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ve effect)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개념(self-concept)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뜻한다(Rosenberg, 1965). 또한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에게 내재화된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적 특질(personality trait)으로써 청소년기의 건강한 심리 및 신체적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특히,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된 요인으로 설명된다(Huebner et al., 2005; 김정연, 정현주, 2008; 황혜원, 2011). 자기평가의 긍정성 즉,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의 정도(Coopersmith, 1967)가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기 능력 및 성공에 대한 확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Pelham & Swann, 198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Cohen과 Edwards(1989)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의 하나로 보았다. 개인적 자원이란, 잠재된 스트레스 사건(potential stressful events)에 대한 평가과정(appraisal 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특정사건이 스트레스로 평가되는 과정, 스트레스 요인으로 평가된 사건에 대한 재평가(reappraisal)를 유도

하는 과정,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는 문제행동 등의 발생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

예컨대,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 및 보호할 수 있다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높아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위협을 적게 느낄 수 있다(Thoits, 2013).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위협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Juth, Smyth & Santuzzi, 2008),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Folkman, 1984; Thoits, 201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가능하고 도전할만하다고 평가하며 문제해결적인 노력(problem-solving efforts) 및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전략들을 보였다(Thoits, 2013). 이처럼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사건이 신체 및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완충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이 된다(정옥분, 2004; Bovier, Chamot & Perneger, 2004; 박현선, 이상균, 2008, Thoits, 2013).

선행연구들은 일상스트레스와 자살생각(김순규, 2008; 최윤정, 2012; 이선희, 전종설, 2012), 스트레스와 우울(최미래, 이인혜, 2003),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최인재, 2014), 대인불안과 부정적 정서(김영혜, 2010), 부모의 학대와 부적응행동(김기환, 2009), 비행친구와 비행행동(박현선, 이상균, 2008) 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충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즉,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부적응적인 행동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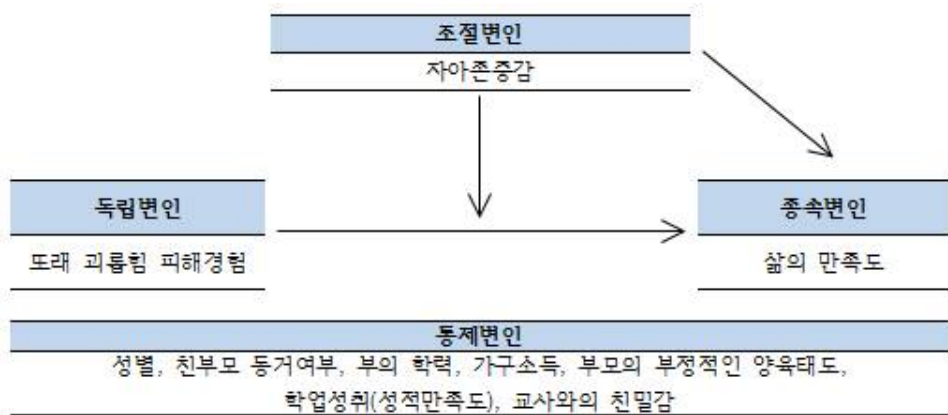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관련한 연구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피해경험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Egan & Perry, 1998; 김현숙, 2013; 서윤, 2014; Turner et al., 2010) 동시에 피해경험이 적응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중요한 역할로써 더욱 주목되어왔다(Grills & Ollendick, 2002; 구차순, 김동환, 2013; 김정남, 남영옥, 2013). 선행연구들은 긍정 및 부정적 자아개념은 또래 괴롭힘 피해학생의 정서·사회·학교생활 적응도의 변화 경로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이은경, 김병석, 2012), 자기효능감이 또래 괴롭힘 피해 집단의 학교생활적응력에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밝혔다(이은

회, 손정민, 2011). 또한 피해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행동 및 생각이 낮아진다는 결과(구차순, 김동환, 2013; 김정남, 남영옥, 2013) 등을 볼 때,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당했을 지라도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적응 및 발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위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Wheaton(1985)이 제시한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buffering model)을 기반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자원으로써 이들 관계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ve buffering effect)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한 뒤,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완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외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제2절 연구가설

연구 문제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2.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덜 부정적일 것이다.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자료

기준에 또래 괴롭힘과 관련한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치중되었던 것에 반해, 피해수준이 심각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해왔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질적인 수준이 악화되고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코호트 3차년도(2012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조사의 효과 및 효율성을 위해 문항별 특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한 바 있다. 가령,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2차년도(2011년)부터 조사가 시작 된 반면, 1차년도(2010년)에 이미 조사가 실시된 삶의 만족도의 경우 가변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2차년도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설계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시작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연구의 주요 변수들이 모두 포함 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코호트 3차년도(2012년) 자료를 선정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에 따르면 본 패널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코호트에서 수집되었으며,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 간 반복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 전국대표성을 반영하여 추출되었고, 학교 방문을 통한 집단설문조사와 부모부가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1차년도 중1 패널의 원표본은 2,351명이며, 3차년도 조사에서는 이민,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2,259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조사에 학부모와 청소년이 모두 응답한 경우로 2012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 2,198명이다.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삶의 상태를 평가하는 인지적인 판단으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김신영 외(2006)가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의 3가지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문항의 평균을 사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척도 개발 당시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747이었으며(김신영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815로 확인되었다.

2.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척도는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 이계오(2010)가 개발한 지난 1년 간의 피해경험의 유무에 대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되었다.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문항으로는 ‘지난 1년 간 학교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을 당한 적이 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이며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다. 이들 문항은 피해경험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있다’=1, ‘없다’=0으로 코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 간 7가지 유형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이라고 보았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대표적인 자아존중감 척도인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변안(고려대학교, 2000)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의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정적인 문항을 역채점하여 합산한 후, 전체 10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815로 확인되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및 분석 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거나 예상되는 변인들인 성별, 친부모 동거여부, 부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학업성취(성적 만족도),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통제하고자 한다. 각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측정되었으며, 남자 청소년을 0, 여자 청소년을 1로 코딩하였다.

가구의 형태는 친부모 모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부의 교육수준은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 졸’, ‘4=대졸’, ‘5=대학원 졸’로 측정되어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가구소득은 월평균소득을 백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100만원 미만=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6’, ‘600만원 이상=7’로 측정되어 높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학업성취(성적만족도)는 ‘3=매우만족한다’, ‘2=만족하는 편이다’, ‘1=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을 뜻한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한 것으로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작성한 것이다. 학대의 문항으로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가 있었고, 방임 문항으로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와 역채점 문항인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1=그렇지 않은 편이다’, ‘0=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8문항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문항을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항목인 ‘교사와의 관계’을 활용하였다. 문항으로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1=그렇지 않은 편이다’, ‘0=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5문항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교사와의 친밀감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모형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적 자원의 상호작용적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인 삶의 만족도,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유무, 자아존중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피해경험여부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을 통해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 통계치가 2에 근접하고, 모든 모형의 분산팽창인자(VIF)가 2이하인 것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 변수를 포함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직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 변수, 자아존중감 변수를 포함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자아존중감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와 각각의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 변수, 자아존중감 변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과정에서 발생한 무응답 집단은 구체적인 특징을 나타내

지 않았기에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 가구 월평균소득,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 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198)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085	49.4
	여	1,113	50.6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6	3.5
	고등학교 졸업	831	37.8
	전문대학 졸업	207	9.4
	대학교 졸업	816	37.1
	대학원 졸업	99	4.5
	무응답	169	7.7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6	3.0
	고등학교 졸업	1,118	50.9
	전문대 졸업	210	9.6
	대학교 졸업	629	28.6
	대학원 졸업	37	1.7
	무응답	138	6.3
부 연령	30~39세	45	2.0
	40~49세	1,582	72.0
	50~59세	394	17.9
	60세 이상	7	.3
	무응답	170	7.7
모 연령	20~29세	1	.0
	30~39세	263	12.0
	40~49세	1,655	75.3
	50~59세	138	6.3

	60세 이상 무응답	1 141	.0 6.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1	4.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8	9.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77	21.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4	18.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83	17.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94	13.4
	600만원 이상 무응답	279 42	12.6 1.9
부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1,975	89.9
	비경제활동	54	2.5
	무응답	169	7.7
모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1,407	64.0
	비경제활동	648	29.5
	무응답	143	6.5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2,198명 중 남자가 1,085명(49.4%), 여자가 1,113명(50.6%)으로 나타나 1대1의 비율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76명(3.5%), 고등학교 졸업이 831명(37.8%), 전문대학 졸업이 207명(9.4%), 대학교 졸업이 816명(37.1%), 대학원 졸업이 99명(4.5%)으로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어머니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6명(3.0%), 고등학교 졸업이 1,118명(50.9%), 전문대학 졸업이 210명(9.6%), 대학교 졸업이 629명(28.6%), 대학원 졸업이 37명(1.7%)으로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부모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45명(2.0%), 40대가 1,582명(72.0%), 50대가 394명(17.9%), 60대 이상이 7명(0.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263명(12.0%), 40대가 1,655명(75.3%), 50대가 138명(6.3%)으로 조사대상자의 부모는 대부분 4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단위의 구간을 적용하여 보고하였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91명(4.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218명(9.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477명(21.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414명(18.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383명(17.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294명(13.4%), 600만원 이상이 279명(12.6%)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3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는 1,250명(56.9%)이며, 부모 중 한 분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882명(40.1%), 두 분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4명(1.5%)로 나타났다.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집중경향도(central tendency)와 분산성(dispersion)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확인하였고, 자료의 정규성(normality)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이 또래 괴롭힘 피해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피해여부에 따른 차이

(n=2,197)

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t
독립 변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1=있다, 0=없다)		185 2012	.08	.27	.00	1.00	2.99	6.98	-
조절 변수	자아 존중감	피해 있다	185	1.65	.49	.30	2.90	.21	.16	506***
		피해 없다	2011	1.83	.45	.10	3.00	.18	.04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피해 있다	185	1.61	.75	.00	3.00	.16	-.39	507***
		피해 없다	2011	1.87	.66	.00	3.00	-.02	-.18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에 대해서 2,197명 중 185명(8%)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비슷한 시기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2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의 비율이 약 10%라는 점(박효정·이희현, 2012)과 유사하다.

피해경험여부를 기준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결과를 각각 살펴 본 결과,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먼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1.87점이었으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1.61점으로 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t=5.07$, $p<.001$).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도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1.83점이었으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1.65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t=5.06$, $p<.001$).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은 일반적인 기준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5) 주요변수들의 왜도의 절댓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의 기준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정규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한다(Kline, 2010).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 검증에 앞서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Pearson's r)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가 0.7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가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r = -.107,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negatively relationship)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r = -.108, p < .01$)과 부적 상관관계(negatively relationship)를 갖고, 자아존중감($r = .569, p < .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positively relationship)를 나타냈다. 통제변수와는 성별($r = -.092, p < .01$), 친부모 동거 여부($r = .065, p < .01$), 가구소득($r = .067, p < .01$), 부정적인 양육태도($r = -.177, p < .01$), 성적만족도($r = .053, p < .01$), 교사와의 친밀감($r = .233,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인 중 부의 학력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친부모와의 동거할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성적만족도가 높을 경우, 교사와의 친밀감이 높을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성별	친부모 동거여부	부의 학력	가구소득	부정적인 양육태도	성적만족도	교사와의 친밀감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
성별	1									
친부모 동거여부	.007	1								
부의 학력	.003	.091**	1							
가구소득	.014	.299**	.430**	1						
부정적인 양육태도	-.146**	-.065**	-.089**	-.072**	1					
성적만족도	.034	.044*	.005	.015	-.056**	1				
교사와의 친밀감	-.001	.025	.039	.050*	-.123**	.056**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112**	-.056**	.026	-.019	.067**	-.050*	.011	1		
자아존중감	-.046*	.052*	.073**	.092**	-.319**	.093**	.217**	-.107**	1	
삶의 만족도	-.092**	.065**	.031	.067**	-.177**	.053**	.233**	-.108**	.569**	1

*p<.05, **p<.01

제3절 가설 검증

본 연구는 Wheaton(1985)의 스트레스-완충모델(stress-buffering model)을 기반 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으로 연구가설들에 대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들을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본 연구 모형들은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을 통해 오차의 등분산성과 오차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 통계치는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모형에서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가 2이하의 값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7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문제1]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를 투입하였고, 이후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다. [연구문제3]에 대한 검증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와 자아존중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것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줄임과 동시에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변수를 평균 중심화 하였다(Aiken & West, 1991; Frazier et al., 2004). 이는 자아존중감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값을 의미한다.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장 처음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 변수를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문제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MODEL 1>

$$Y = a + b_1D_1 + b_2D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D_8 + e$$

Y : 삶의 만족도

D₁ : 성별(0=남자, 1=여자)

D₂ : 친부모 동거여부(0=친부모 동거 이외 가족구성, 1=친부모 동거)

X₃ : 부의 학력수준

X₄ : 월평균 가구소득

X₅ :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X₆ : 학업성취(전체 성적만족도)

X₇ : 교사와의 친밀감

D₈ :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유무(0=피해경험 없음, 1=피해경험 있음)

[표 4]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MODEL 1		
	B	S.E	β
성별	-.183	.029	-.136***
친부모 동거여부	.026	.044	.013
부의 학력수준	-.001	.015	.002
월평균 가구소득	.009	.008	.027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251	.033	-.164***
학업성취(전체 성적만족도)	.019	.013	.030
교사와의 친밀감	.222	.023	.208***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유무	-.281	.052	-.115***
상수		1.693	
R ²		.107	
Adj. R ²		.104	
F		30.263***	

*p<.05, **p<.01, ***p<.001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MODEL 1>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를 투입한 것이다. <MODEL 1>의 모형 적합도는 30.263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104으로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10.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beta=-.115$, $p<.001$)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beta=-.136$, $p<.001$)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beta=-.164$, $p<.001$), 교사와의 친밀감($\beta=.208$, $p<.001$)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

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 변수를 함께 투입하고,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 문제 2.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MODEL 2>

$$Y = a + b_1D_1 + b_2D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D_8 + b_9X_9 + e$$

Y : 삶의 만족도

D₁ : 성별(0=남자, 1=여자)

D₂ : 친부모 동거여부(0=친부모 동거 이외 가족구성, 1=친부모 동거)

X₃ : 부의 학력수준

X₄ : 월평균 가구소득

X₅ :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X₆ : 학업성취(전체 성적만족도)

X₇ : 교사와의 친밀감

D₈ :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유무(0=피해경험 없음, 1=피해경험 있음)

X₉ : 자아존중감

[표 5]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MODEL 2		
	B	S.E	β
성별	-.109	.025	-.081***
친부모 동거여부	.031	.038	.015
부의 학력수준	-.009	.013	-.015
월평균 가구소득	.002	.007	.005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003	.030	-.002
학업성취(전체 성적만족도)	-.003	.011	-.005
교사와의 친밀감	.124	.020	.116***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유무	-.157	.045	-.064***
자아존중감	.783	.029	.531***
상수		1.690	
R ²		.343	
Adj. R ²		.340	
R ² change		.236	
F		116.906***	

*p<.05, **p<.01, ***p<.001

[연구가설 2]에 따라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MODEL 2>를 설정하였다. <MODEL 2>의 모형 적합도는 116.906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340으로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3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beta = -.064$, $p < .001$)과 자아존중감($\beta = .531$, $p < .001$)은 독립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또래 괴롭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와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성별($\beta = -.081$, $p < .001$)과 교사와의 친밀감($\beta = .116$, $p < .001$)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세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완충 효과(interactive buffering)에 대한 것이다.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한 <MODEL 2>에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평균 중심화시킨 뒤 평균중심화 값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조절변인인 자아존중감의 특정 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Aiken & West, 1991).

연구 문제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덜 부정적일 것이다.

<MODEL 3>

$$Y = a + b_1D_1 + b_2D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D_8 + b_9X_9 + b_{10}D_8X_9 + e$$

Y : 삶의 만족도

D₁ : 성별(0=남자, 1=여자)

D₂ : 친부모 동거여부(0=친부모 동거 이외 가족구성, 1=친부모 동거)

X₃ : 부의 학력수준

X₄ : 월평균 가구소득

X₅ :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X₆ : 학업성취(전체 성적만족도)

X₇ : 교사와의 친밀감

D₈ :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유무(0=피해경험 없음, 1=피해경험 있음)

X₉ : 자아존중감

[표 6]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MODEL 3		
	B	S.E	β
성별	-.108	.025	-.080***
친부모 동거여부	.027	.038	.013
부의 학력수준	-.010	.013	-.015
월평균 가구소득	.002	.007	.006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004	.030	-.003
학업성취(전체 성적만족도)	-.004	.011	-.007
교사와의 친밀감	.123	.020	.116***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유무	-.121	.046	-.049**
자아존중감	.756	.030	.513***
피해경험 유무 * 자아존중감	.274	.091	.060**
상수		1.690	
R ²		.346	
Adj. R ²		.343	
R ² change		.003	
F		106.557***	

*p<.05, **p<.01, ***p<.001

<MODEL 3>는 [연구가설 3]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적 완충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것이다. <MODEL 3>은 R^2 의 변화량에 대한 F값이 유의미하고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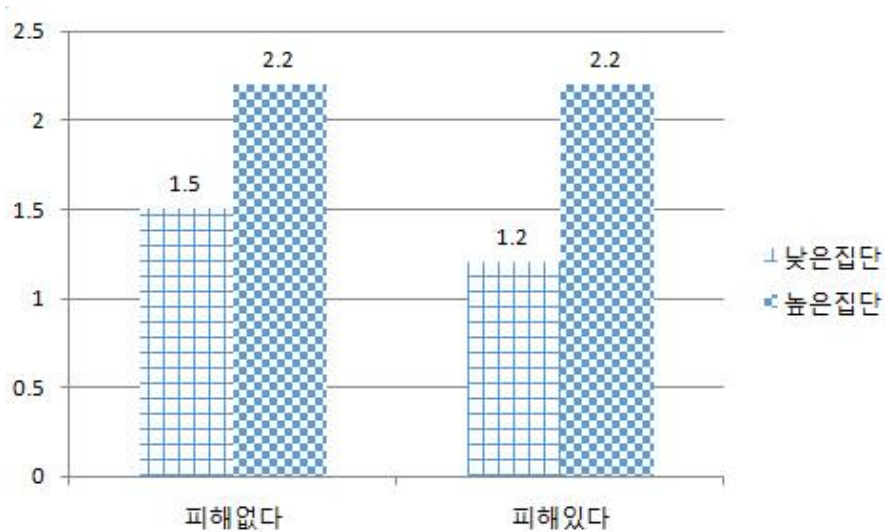
[표 6]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MODEL 3>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이후 수정된 설명력(Adj. R^2)이 34.3%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이전보다 0.3%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모형 적합도는 106.557로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대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이후의 설명력의 변화량이 0.01-0.03 사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설명력의 증가 또한 적지 않은 값을 알 수 있다(Whisman & McClelland, 2005; 박현선, 이상균, 2008에서 재인용).

<MODEL 3>을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beta=.060$, $p<.01$), <연구가설 3>이 지지되었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그 영향이 감소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1 표준편차를 기준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그림 3]으로 나타냈다(Aiken & West, 1991).

[그림 3]을 보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피해경험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제6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피해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 및 행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자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실천 및 정책적 개입의 지점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또래로부터 언어, 신체, 관계적 괴롭힘 등을 당하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생각, 우울 및 불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하며,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으로 이들의 병리적인 결과에 치중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병리적인 관점은 피해경험으로 인해 심각하게 떠오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이며, 이로써 개입의 대상 및 방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피해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킬 수 있는 노력을 발견하기 위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관계에서 개인적 자원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ve effect)를 살펴보기 위하여 Wheaton(1985)이 제시한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buffering model)을 적용하였다. 이때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를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Wheaton(1985)이 제시한 스트레스 완충모델을 토대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 자원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

었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코호트 3차년도(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왔던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또래 괴롭힘의 질적인 심각성과 낮은 주관적 삶의 질이 우려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15, p < .001$).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청소년기의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beta = .531, p < .001$)은 삶의 만족도에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와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2]**가 지지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은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모형을 설정하였고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모형인 [MODEL 3]은 설명력의 변화량이 0.3%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056, p < .01$).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바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을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완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이 지지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개인적 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제2절 논의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를 조절하는 개인적 자원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와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발달뿐 아니라 긍정적인 발달까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5$, $p < .001$).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경험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Wilkins-Shurmer et al, 2003; Gini, 2008; Goswami, 2012; Tiliouine, 2014; 장안식, 2012; 서윤, 2014; 김정미 외, 2014).

먼저, 국외 선행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구분하여 관계적 괴롭힘(relational victimization) 혹은 수동적 괴롭힘(being left out by classmate)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및 물리적 괴롭힘(overt victimization)보다 친구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밝혔다(Gini, 2008; Tiliouine, 2014). 즉, 본 연구와는 달리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의 경우에서도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김경미 외, 2014)과 피해 빈도가 증가하거나 지속될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노성호, 2013; 장안식, 2012; 서운, 2014)을 보아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청소년기의 주관적 삶의 질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지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또래 괴롭힘의 범위를 신체 및 언어, 관계적 괴롭힘으로 포괄시켰으며 이러한 피해경험을 하나라도 경험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우울 및 불안, 자살생각 등과 같은 병리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험 그 자체로 피해청소년들의 삶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또래 괴롭힘에 대한 관점은 가해자 중심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있었다. 이에 또래 괴롭힘 이후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며, 그마저 병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에 그쳐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괴롭힘에 대한 관점이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회복 및 강점 관점으로 확대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이후에도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유지 및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통제변수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31$,

$p<.001$). 이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다수의 관련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의 개인적 자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능력 및 성공에 대한 믿음으로써 삶의 어려운 문제와 난관에 봉착했을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Branden, 1992, 황혜원, 2011; 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기 스스로 가치 없음을 느끼고,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표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게 된다(변보기, 강석기, 2002).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이들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아존중감 이외에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들 중 교사와의 친밀감은 자아존중감에 이어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6$, $p<.001$). 이는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학교 내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친부모와의 동거여부, 부의 학력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학업성취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족의 구조 및 기능적인 측면보다 또래 괴롭힘,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이 학교 내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남영옥, 한상철, 2007; 황혜원, 2011; 고혜영, 2012).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서 중학교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며 또래 친구와의 관계 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인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Wheaton(1985)이 제시한 상호작용효과 모델을 적용하였고,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평균 중심으로 1 표준편차 높은 집단과 1 표준편차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자아존중감의 어떤 수준에서 완충효과가 나타나는지 바 그래프(bar graph)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일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라 밝혀져 왔다. Grills와 Ollendick(2002)은 높은 자기가치감(self-worth)을 보이는 남학생의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불안(anxiety)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정남과 남영옥(2013)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화목도, 친구관계기술, 자아존중감의 보호요인 중 유일하게 자아존중감만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며, 외부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거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이선희, 전종설, 2012).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이들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지를 살펴 본 연구들은 없었으며, 특히 자아개념(self-concept)이 점차 확고해지는 중학교 후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개입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 자살생각 및 행동 등과 같은 병리적인 결과를 예방 및 치료할 뿐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만족감을 유지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 및 성장을 도모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의 방법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방법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합의

1. 이론적 합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합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에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관련한 연구들은 최초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시기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한 지역이나 한 학교 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비확률표본추출을 통해 수집하면서 자료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로인해 또래 괴롭힘의 질적인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중학교 학생들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높은 외적 타당도를 갖고자 하였으며,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학생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우울 및 불안, 자살생각 및 행동 등과 같은 병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만 보며,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개입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에 집중되어왔다. 반면, 본 연구를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안전 및 행복과 관련 된 삶의 만족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협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생애 발달론적 관점으로 볼 때 삶의 만족도는 또 다른 문제행동들을 예방하는 데 관련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도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피해경험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만족감을 보이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Wheaton(1985)의 스트레스-완충모델을 적용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모형의 적용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완충모델을 토대로 개인적 자원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갖는지 이론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실제로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바그래프로 시각적인 비교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실천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여부가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이러한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실천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청소년들의 긍정 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또래 괴롭힘에 대한 개입은 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선도의 측면으로 이루어졌으며, 또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은 도외시되어 왔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치료비 지원, 학급 교체 등 병리적인 관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견주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해 긍정적인 발달 및 행복할 권리, 안전 할 권리가 침해 및 손상될 경우에 대한 사회적 개입 및 지원이 열악함을 견주해볼 수 있다. 더구나 실제로 피해 청소년을 위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또한 열악하며, 피해자를 위한 대안 교육 및 프로그램의 콘텐츠, 전담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상황이다(장준오 외, 2012). 즉, 피해경험 이후 심리 및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 않거나 이에 대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및 보호적 개입이 허술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예방 및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로 제7대 실천 정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그 중에서도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의 확대와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의 전략은 건전한 또래 문화(peer culture)

와 인성 및 생활 지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이 증가됨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학급차원에서 또래 친구 및 교사와의 수평적 관계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학급 목표 세우기, 학급 평화 규칙 만들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교 내 폭력을 중재 및 화해를 이끌어내고,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조성함으로써 폭력 없는 우정관계 및 이를 지지하는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이 확대된다면,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연수 또한 필연적이며, 건전한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성교육 등의 실천은 비단 초등학교에서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 등보다 적극적인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전담체계,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경우처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시, 벌금, 몰수, 추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지원금 명목으로 보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장준오 외, 2012). 또한 피해경험 이후에도 이들이 자신의 강점과 긍정적인 발달 및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피해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삶에 대한 만족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핵심요인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높은 자아존중감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들의 행복감에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독일 헤센 주의 한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에 폭력예방을 포함시켰는데,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해당하는 8~10학년 학생들은 자의식 강화를 위한 특별수업과목을 실시하고 있었다(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3). 즉, 자의식 강화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자신의 강점 및 단점을 발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왜곡된 인정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괴롭힘 가해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괴롭힘을 당했을 지라도 소중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가 적극적인 대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괴롭힘을 목격했을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으로 인해 이를 도울 수 있는 용기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즉,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지원은 비단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입지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해왔다. 특히 또래 괴롭힘 피해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등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높게 느끼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새겨진 부정적인 자기상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이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187명으로 그 비율이 8% 정도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표집수의 제한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기준집단으로 삼고, 어떠한 또래 괴롭힘일지라도 한번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Merrell(2008)은 학교폭력 평가의 신뢰 및 타당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중다방법, 중다정보원, 중다장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의 편의와 비밀보장이 반영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자기보고식(self-report)의 응답뿐만 아니라, 또래지명(peer nominations) 및 또래평정(peer-ratings) 등 적극적인 조사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사이버 공간에 폭력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보다 낮은 피해경험의 응답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고려된 조사가 추가 될 필요가 있으며, 또래 괴롭힘을 직·간접적 피해경험으로 구분하거나, 피해의 지속 기간을 고려하는 등 피해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도록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대처자원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개인적 자원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처자원에는 개인적 자원 뿐 아니라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피해경험이 있을지라도 피해

청소년의 사회적 자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이들 사회적 자원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 및 검증을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대처 자원이 좀 더 다양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 이들의 강점자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등 정서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청소년기 주관적인 삶의 질의 측정은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context-free)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각기 다른 환경 조건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할 척도가 있지만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감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표준화 척도를 사용하여 이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중 중학교 1학년 코호트 3차년도(2012년) 조사자료를 통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과적인 해석은 한계가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 대한 설명은 제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계획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 코호트 3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었으며, 본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주된 성장 및 발달을 3년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본 자료는 2차년도(2011년)부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었지만, 삶의 만족도의 경우 1차년도(2010년)와 3차년도(2012)부터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하고자 하는 주요변수들이 모두 포함 된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패널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이후 피해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를 어떻게 조절 완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 모형의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국내 참고문헌

- 경기도 교육청(2012). 경기도 학교행복지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2000). 심리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 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구차순, & 김동환. (2013).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225-256.
- 김경미, 염유식, & 박연민. (2013).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36-247.
- 김광수. (2012).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초등학교 상담의 방향과 과제. 초등상담연구, 11(2), 193-217.
- 김기환. (2009). 부모의 자녀학대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9(2), 215-258.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단일호), 66-93.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61.
- 김영혜. (2010). 연구논문: 대인불안과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7(7), 1-20.
- 김재엽, & 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정남, & 남영옥.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초기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4), 83-104.

- 김정연, & 정현주. (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단일호), 171-190.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 이계오. (2010).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12), 1-236.
- 김현숙. (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 남영옥, & 한상철. (2007).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들의 영향력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5(1), 77-90.
- 노성호. (2013). 범죄피해, 범죄의 두려움과 청소년의 삶의 질. 피해자학연구, 21(1), 83-110.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단일호), 399-427.
- 박효정, & 이희현. (2012). 2012년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변보기, & 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 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서윤.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지속성 및 노출정도가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6), 223-253.
- 신성자. (2014). 교사의 학교폭력개입능력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학교사회복지, 28, 137-165.
- 안지영. (2007).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중학생과 그 부모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13.6.5.). "교사·학부모·학생 80~90%, 학교교육 위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98033> 에서 2015년 3월 26일 인출.
- 유조안 (2015).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에서의 발견. 2015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 고은혜. (2015).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2015.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소, & 세이브더칠드런.
- 이선희, & 전종철. (2012). 남, 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8 (단일호), 173-202.
- 이은경, & 김병석. (2012). 개인과 가족 차원의 보호요인이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의 적응도 변화경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2), 725-743.
- 이은희, & 손정민. (201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연구-탄력성 모델을 이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3(2), 149-171.
- 이주리. (2009). Data Mining 을 이용한 초등학교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아동학회지, 30(1), 11-25.
- 이현주, 이미나, & 최인수. (2008).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301-315.
- 임미향, 박영신. (2006).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2, 159-179.
- 임희진, 백혜정, 김현철, 강현철, 안지선, 김현주, & 백유선(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연구 보고서 No. 2012-22.
-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 & 조미술.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571.
- 장안식. (2012).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발달적 변화.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69-82.
- 장준오, 김미숙, 장미혜, 배상률 외(2012). 청소년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명호, 김정오, &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 조성연, 김혜원, & 김민. (2010). 부모-자녀의사소통 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13-217.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2013).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미례, &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윤정.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3), 77-104.
- 최인재.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219-243.
- 최수미, 김동일, 최선, 고유림, 박정은, 신예지, 최희철. (2012). 사회적 기술, 따돌림 피해경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인과적 모형 탐색. 상담학연구, 13(1), 135-148.
- 최희철, & 황매향. (2011). 초등학교생의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의 종단적 관계. 한국초등교육, 22(2), 75-9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3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출판사: 학지사.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홍나미, & 박재연. (2014). 학교폭력 피해청소년과 가족 대상 실천적 지원 방안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2), 81-107.
- 황혜원.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1-26.

국외 참고문헌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rseneault, L., Bowes, L., & Shakoor, S. (2010). Bullying victimization in youths and mental health problems: 'Much ado about nothing'?. *Psychological Medicine*, 40(05), 717-729.
- Bacete, F. J. G., Perrin, G. M., Schneider, B. H., & Blanchard, C. (2014). Effects of School on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andbook of Child Well-Being* (pp. 1251-1305). Springer Netherlands.
- Bauman, S., & Del Rio, A. (2006). Preservice teachers' responses to bullying scenarios: Comparing physical, verbal, and relational bully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1), 219.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ovier, P. A., Chamot, E., & Perneger, T. V. (2004). Perceived stress, internal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as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among young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13(1), 161-170.
- Bradley, R. H., & Corwyn, R. F. (2004). Life satisfaction among European American, African American, Chinese American, Mexican American, and Dominican Americ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5), 385-400.
- Brande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An inspiring look at our most important psychological resource*.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 being: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cohabi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351–367.
- Björkqvist, K., Ekman, K., & Lagerspetz, K. (1982). Bullies and victims: 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1), 307–313.
- Callan, V. J., Terry, D. J., & Schweitzer, R. (1994). Coping resources, coping strategies and adjustment to organizational change: Direct or buffering effects?. *Work & Stress*, 8(4), 372–383.
- Cohen, S., & Edwards, J. R. (1989).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isorder. In R. W. J. Neufeld(Ed), *Advanced in the investigation of psychological stress*(pp. 235–283). New York: Wiley.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
- Cowen, E. L. (1994). The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well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2), 149–179.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9). 17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187.
- Dupper, D. R. (2013). School bullying: New perspectives on a growing problem. Oxford University Press.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
- Eslea, M., & Rees, J. (2001). At what age are children most likely to

- be bullied at school?. *Aggressive Behavior*, 27(6), 419-429.
- Farrington, D. P. (199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Crime and Justice*, 381-458.
- Flouri, E.,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ce*, 26(1), 63-78.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39.
- Fortin, N., Helliwell, J. F., & Wang, S. (2015). How does subjective well-being vary around the world by gender and age?. *World Happiness Report*, 42-73.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
- Frisch, M. B. (2000). Improving mental and physical health care through quality of life therapy and assessment. In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 (pp. 207-241). Springer Netherlands.
- Gilman, R.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social interest, and frequency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mong adolescent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749-767.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293-301.
- Gini, G. (2008). Associations among overt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friends: The moderating role of the need for affective relationships with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7), 812-820.
- Glanz, K., & Schwartz, M. D. (2008). Stress, coping, and health

- behavior.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ition. San Francisco (CA): John Wiley and Sons, Inc, 211-36.
- Goswami, H. (2012). Social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7(3), 575-588.
- Greenspoon, P. J., & Saklofske, D. H. (2001). Toward an integra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patholog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1), 81-108.
- Grills, A. E., & Ollendick, T. H. (2002). Peer victimization, global self-worth, and anxiety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1), 59-68.
- Hazler, R. J. (1992). What kids say about bullying. *Executive Educator*, 14(11), 20-22.
- Huebner, E. S. (1991).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6(2), 103.
- Huebner, E. S., Funk, B. A., & Gilman, R. (2000).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repor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6(1), 53-64.
-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R. F. (2005). Children's life satisfaction. In *What Do Children Need to Flourish?* (pp. 41-59). Springer US.
- Juth, V., Smyth, J. M., & Santuzzi, A. M. (2008). How do you feel? Self-esteem predicts affect, stress, social interaction, and symptom severity during daily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7), 884-894.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onu, A. I., Lintonen, T. P., & Rimpelä, M. K. (2002).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children's general subjective well-being. *Health Education Research*, 17(2), 155-165.
- Lazarus, R. S., & Cohen, J. B. (1977). *Environmental stress*. In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pp. 89-127). Springer U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 Merrell, K. W. (2008).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Academic Press.
- Michalos, A. C., & Zumbo, B. D. (2000). Criminal victim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3), 245–295.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57, 76.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315, 341.
- Olweus, D., Limber, S., & Mahalic, S. F. (1999). *Bullying prevention program*: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 Olweus, D., & Breivik, K. (2014). Plight of Victims of School Bullying: The Opposite of Well-Being. In *Handbook of Child Well-Being*(pp. 2593–2616). Springer Netherlands.
-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1.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1–256.

- Pearlin, L. I. (1999). The stress process revisited.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395-415). Springer US.
- Pelham, B. W., & Swann, W. B.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72.
- Pellegrini, A. D., & Long, J. D. (2002).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dominance, and victimiz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hrough secondary school.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259-280.
- Rigby, K., & Slee, P. (1999).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 school children, involvement in bully-victim problem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2), 119-130.
- Rigby, K. (2000).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in school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3(1), 57-6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 32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 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 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6), 1321-1343.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
- Sullivan, T. N., Farrell, A. D., & Kliwer, W. (2006).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drug use,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s

- among urban middle school stud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01), 119–137.
- Thoits, P. A. (2013). Self, identity, stress, and mental health.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357–377). Springer Netherlands.
- Tiliouine, H. (2014).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lgeria. *Child Indicators Research*, 1–18.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10). Poly-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3), 323–330.
- Wang, J., Iannotti, R. J., & Luk, J. W. (2010).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underweight and overweight US youth: Differential associations for boys and gir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7(1), 99–101.
- Wheaton, B. (1985). Models for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2–364.
- Whisman, M. A., & McClelland, G. H. (2005). Designing,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in family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1), 111.
- Wilkins Shurmer, A., O'Callaghan, M., Najman, J., Bor, W., Williams, G., & Anderson, M. (2003). Association of bullying with adolescent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39(6), 436–441.
- Young, M. H., Miller, B. C., Norton, M. C., & Hill, E. J. (1995).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ive behavior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offsp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13–822.
- Zullig, K. J., Valois, R. F., Huebner, E. S., Oeltmann, J. E., & Drane, J. W.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nd adolescents' substance ab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9(4), 279–288.

부록: 설문지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문19)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㉑ 나는 사는 게 즐겁다.	1	2	3	4
㉒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1	2	3	4
㉓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독립변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문23) 학생은 지난 일 년 동안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6가지 행동 각각에 대해 피해경험 여부를 ○표 하고,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횟수를 써 주십시오.

	피해경험 여부	피해경험이 있다면, 그 횟수를 써 주십시오.
①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1.있다	지난 1년 동안 _____ 회
	2.없다	
② 집단따돌림(왕따)당하기	1.있다	지난 1년 동안 _____ 회
	2.없다	
③ 심하게 맞기(폭행)	1.있다	지난 1년 동안 _____ 회
	2.없다	
④ 협박당하기	1.있다	지난 1년 동안 _____ 회
	2.없다	
⑤ 돈이나 물건 뺏기기(빼앗기기)	1.있다	지난 1년 동안 _____ 회
	2.없다	
⑥ 성폭행이나 성희롱	1.있다	지난 1년 동안 _____ 회
	2.없다	
⑦ 심한 욕설	1.있다	지난 1년 동안 _____ 회
	2.없다	

[조절 변수: 자아존중감]

문19)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②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③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④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1	2	3	4
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⑦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⑧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⑨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⑩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통제 변수: 성별, 가구형태, 가구소득, 부의 교육수준, 성적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문2)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남자

2. 여자

문7)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① 친아버지+친어머니

② 친아버지만

③ 친어머니만

④ 친아버지+새어머니

⑤ 친어머니+새아버지

⑥ 새아버지+새어머니

⑦ 새아버지만

⑧ 새어머니만

⑨ 부모님 모두 안 계심

문25) 학생이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1	2	3	4
②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1	2	3	4
③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1	2	3	4
④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1	2	3	4
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1	2	3	4
⑥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1	2	3	4
⑦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1	2	3	4
⑧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1	2	3	4

Abstract

The Research on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affecting Life Satisfaction

Ko, Eun Hy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everyone agrees the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is main factor threatening the safety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the research on this issue is still not conducted well. To help th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eer victimiza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ir positive growth after support the pathological problem. Hence, this research based on the stress-buffering model is conducted to confirm personal resource which is able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each victim's life satisfaction. Following this purpose, I set up the stressful experience of adolescents as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their positive growth and adaptation as life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as personal resource. According to this research model setting, I verified the effect of experience of peer victimization affecting life satisfaction, the effect of self-esteem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self esteem.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the survey result of 'Korea Children & Adolescents Panel' tha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conducted in 2012. This result collected responses of 2,198 survey respondents that the parents and children both answered among the third year(2012) research targets of first-year student of middle school cohort.

The major findings of present study are as follow.

First,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was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eer victimization show lower life satisfaction than the adolescents who do not experienced peer victimization.

Second, self-esteem which is personal resource of adolescents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at is, the adolescents who have higher self-esteem show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the adolescents who have lower self-esteem.

Third, as a result of study whether the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s buffered by the level of self-esteem,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was found to have interaction effect with self-esteem. In other words, the adolescents who have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shows lower life satisfaction than the adolescents who do not experience peer victimization, and the negative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affecting life satisfaction becomes lower as the adolescents have higher self-estee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s follows. As the negative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s

examined, preventing experience of peer victimization is the primary thing to promote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And by the result that the adolescents who have higher self-esteem show higher life satisfaction, intervening is found to be necessary to enhance the self-esteem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e intervention enhancing self-esteem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victim's life satisfaction, because especially self-esteem showed the interaction effect about negative effect that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affects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eeks the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and it seeks the personal resource which can demonstrate the differenc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ho experienced peer bullying. Also,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national representative data that looks at the life satisfaction of first-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which is emerging problem because of the severity of peer victimization harassment. But, this study has some limits. First, it cannot reflect the frequency or degree of peer victimization. Second, since the results are come from cross-sectional research,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cannot be explained. Third, this study overlooked diverse personal resources and social supply.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overcome these limits.

***Key-Words* :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buffering effects**

***Student Number* : 2012-20121**